

군산 참홍어, 수제맥주 축제서 인기

반건조 홍어구이·튀김&칩스·어묵 선보여... 폭발적 인기 속에 매진 행렬

군산 참홍어가 이번 군산시 수제맥주 축제에서 큰 호응을 얻으며 상품화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진행된 '2025 군산시 수제맥주 & 블루스 페스티벌' 축제에서 군산시의 군산서해근해연승연합회(군산 참홍어 어업인협회)는 공동 부스를 운영하며 군산 참홍어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특히 시는 군산 대표 수산물인 '군산 참홍어'의 대대적인 홍보를 위해, 야심차게 개발한 홍어 어묵, 홍어튀김&칩스 등을 처음 선보였다. 이 중 반건조 홍어구이가 가장 높은 인기를 끌었다.

특이하면서도 맛있는 참홍어의 맛에 푹 빠진 관람객들은 행사를 위해 준비한 전 품목을 모두 매진시켰고, 행사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시는 시제품 판매 외에도 포토존 운영, 캐릭터 및 다양한 굿즈 상품 이벤트도 추진하면서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했다.

행사에 참여한 젊은 관람객들은 친근하고 귀여운 홍어 캐릭터에 호감을



보이며, 함께 포즈를 취하기도 했고, 처음 먹어본 홍어구이, 홍어튀김&칩스의 맛에 흠뻑 빠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박동래 군산시 수산산업과장은 "행사 기간 내내 우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람객들이 부스를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며, "이번 행사 참가를 통해 지역 특화 수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어업인 등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등 군산 수산물 브랜드의 가치를 드높이는 계기가 된 것 같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군산 참홍어는 전국 생산량의 43%를 차지하는 군산 1등 수산물로 지역 특화 수산물 홍보 및 마케팅을 통해 다양한 판매망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농축수산물의 판로를 열어주는 카카오 온라인 쇼핑 플랫폼 '카카오 제가버치' 등을 통해 온라인 판매망 구축에 힘쓰고 있으며, 국내외 체인점 식당·기업체에 공급하는 등 적극적인 판로 확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산=김만호 기자

전국 7개 지자체에 혁신행정 비결 전수

군산시, '정부혁신 멘토 기관' 선정... 조직 혁신 우수사례 공유

군산시, '2025년 정부혁신 멘토 기관'으로 선정되면서 2회에 걸쳐 조직 혁신 우수사례 공유

군산시가 전국 7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부혁신 멘토링'을 열고 '서무실록', '정책 반올림' 등 군산시의 주요 혁신행정 노하우를 전수했다.

이번 멘토링은 행정안전부가 혁신 우수기관의 사례를 타 지자체에 확산하고 기관 간 소통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산시는 '2024년 정부혁신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혁신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맡아 수행한 것을 인정받아 참여했다.

멘토링은 18일과 23일, 총 2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1회차에는 광주 동구, 서천군, 담양군, 영광군이, 2회차에는 울산 중구, 함평군, 예천군이 멘티 기관으로 참여해 질의응답과 토론을 이

어갔다.

군산시는 △서무 업무편람 누리집 '서무실록' △저 연차 공무원 중심의 시정혁신 모임 '정책 반올림' △기관장과 실무자 간 소통 프로그램 '담나귀(당신과 나, 서로에게 귀 기울이기)', '시티군산(시장님과 티타임)' △분야별 명사 초청 특강 '생각을 키우는 아침 창' 등 다양한 혁신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특히 '정책 반올림'의 정책경연대회와 조직문화 개선 사례(청찬 달리버리, 점심 문화 개선 캠페인)는 많은 지자체의 관심을 끌었으며, '아침 창'의 기획 의도와 운영 방식 역시 멘티 지자체들의 열띤 질의가 이어졌다.

군산시는 기존의 혁신 프로그램에 더해, 하반기에도 조직 내 의미 있는 변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이어갈 계획이다.

/군산=김만호 기자

익산시, 정신건강 업무 실무자 역량 강화

읍면동 복지 담당자·사회복지기관·의료기관 관계자 대상 교육

익산시가 정신건강 실무자들의 역량을 높여 지역 정신건강 체계 강화에 나섰다.

시는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양찬모)와 함께 24일 모현시립도서관에서 정신건강 유관기관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트라우마, 기억을 걷는 시간'을 주제로, 읍·면·동 사회 복지 담당자와 사회복지기관 및 의료기관 등에서 정신건강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원광대학교병원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가 강사로 나서 실무에 적용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트라우마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효과적인 개

입 방법과 심리적 회복 지원 방안 등을 전달했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트라우마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더욱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정신 건강 증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양찬모 센터장은 "이번 교육이 실무 현장에서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정신건강 협력체계 강화와 실무자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063-841-4235)에서는 정신건강상담 및 자살예방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주말 및 야간에는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와 24시간 자살예방상담전화(109)를 이용하면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호응'

맞춤형 서비스 선택으로 이용자 만족도 ↑... 현장 중심 제도 정착 기대

익산시가 장애인이 직접 설계하는 서비스인 '개인예산제'를 통해 맞춤형 복지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익산시는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중간 간담회'를 개최하고, 당사자 중심 복지서비스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방안을 논의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당사자가 자신의 욕구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직접 설계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의 획일적인 서비스 지원 구조에서 벗어나 개인 맞춤형 자립생활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날 간담회는 시범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제도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전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제도를 실제로 이용 중인 장애

인이 직접 참여해 실생활에 적용한 경험을 공유하며 만족감을 전했다. 또한 제공기관 실무자들도 제도 운영상 애로사항과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익산시는 보건복지부 주관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올해 1월부터 사업을 본격 운영 중이다. 장애인 바우처 이용자 중 37명을 선정해 개인별 바우처 지급액의 20%를 일상·사회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의회, 제270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익산시의회(의장 김경진)가 24일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해 총 35건의 안건을 의결한 후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현장방문과 시정질문을 실시해 시정의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또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고 1조9,089억 규모의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김경진 의장은 "제대 후반기 익산시의회가 어느덧 반갑음을 들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들과 항상 소통하면서 시민을 위한 소임을 다하겠다.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5분 자유발언에서 유재구 의원

은 동산동·마동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증가하는 교통량 분산을 위한 동산동 도로 연장선 개설을 촉구했다.

손진영 의원은 익산시 먹거리 돌봄과 관련,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으며, 김경숙 의원은 농민이 주도하는 영농형 태양광이 익산 농촌의 새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용 의원은 익산 문화유적지 방문 관광객을 위한 부대시설 관리 개선 필요성에 관해 발언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공부의 명수’ 질문왕 30명
프로야구 관람 기회 제공

군산시가 여름방학을 맞아 지역 학생들에게 색다른 학습 동기를 제공한다.

시는 공공학습 플랫폼 ‘공부의 명수’의 학습질문방을 적극 활용 중인 학생들을 대상 프로야구 관람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8월 1일까지 운영되며, ‘공부의 명수’ 내 학습질문방을 가장 활발히 이용한 관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생까지 학생 중 30명을 선정해 프로야구 관람 기회를 제공한다.

학습질문방은 월요일~금요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된다. 과목별로는 수학은 매일, 영어와 프리토킹은 월·수·금요일에 이용할 수 있다.

당첨자는 8월 8일 ‘공부의 명수’ 누리집을 통해 발표되며, 선정된 학생들은 8월 19일 광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KIA 타이거즈와 키움 히어로즈의 경기를 관람하게 된다.

/군산=김만호 기자

군산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 모집

군산시가 '2025년 하반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를 오는 7월 1일부터 11일까지 2주간 모집한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선정된 이용자에게 사회서비스 이용권(전자바우처)을 지급해 등록된 제공기관을 통해 지역 특성과 주민수요에 맞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자 중심 복지사업이다.

특히 이용자가 복지·보건의료·교육·문화 등 여러 분야의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해 원하는 서비스와 제공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사업으로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언어발달, 초기 인지 발달 등을 지원하는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 △아동 정서 발달 지원 △노인 맞춤형 운동 등 15개이며 모집 인원은 총 1,000여 명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누리집 사회서비스(바우처) 자료 게시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산=김만호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쪽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법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함도문화전자대전